양보 없는 믿음이 종교비극 초래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㊼ 종교평화에 대한 소고 2

모든 종교는 자신의 종교가 최고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최고의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를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해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불교로 개종시켜야 옳은 것 아닌가요?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루 빨리 불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야말로 불교도가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인데, 왜 다른 종교도 용인하는 너그러움을 보이는 것일까요? 혹시 그 너그러움은 잘못된 것이며, 불교에 대한 신앙이 투철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몇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불교의 근본적 입장인 '방편설'이라는 것이 종교적 관용성을 낳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해를 건너게 하는 뗏목과 같다는 것이지요. 목적은 고해를 건너는 것이지, 고해를 건너고 나서도 뗏목을 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벗어남이 소중한 것이며, 그 가르침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편이라 하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떤 방편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즉 좀 효과는 떨어질지 몰라도 다른 방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악(惡)'이라고 보지 않는 다는 점이지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면 그것을 없애려 나서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종교 사이에 피 흘리는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고로 두되,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 이것이 종교적 관용성을 낳게 하는 것이지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도 지혜롭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해독을 낳을 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더해지게 되면 더더욱 너그러운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것이 불교의 독특한 시각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너무 그것에 집착하면 외도와 사도의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기도 바쁘거든요. 그 가리킨 손가락 방향 따라 달 보기도 바쁜데, 혹 손가락 붙잡고 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종교의 가르침에 시비를 걸 여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방편설'의 입장이 종교적 관용성을 낳는 바탕이 된다면, 그 방편설의 기본 입장인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다시 종교적 관용성을 확장시킵니다. 좀 어렵게 말했나요? 그냥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분에 있던 사람이 부처님의 교단에 귀의할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분은 타 종교의 독실한 신도였었지요. 그 종단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 가르침의 뛰어남에 감복하여 불교도로 개종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 때 부처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라"고 하시면서, 금방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에 따라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부처님 교단에 귀의할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사람이 믿고 있었던 종교의 교단에 하던 종교적 헌금 등을 여전이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를 교단에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악'으로 보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네가 이제야 악의 품을 벗어났구나!" 하시면서 얼른 받아들이셨겠지요. 일단 부처님은 그렇게 다른 종교가 악이라고 보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단시 신도 수를 불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정이 중요하다. 이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그런데 종교만을 내세워 사회적 안정을 해친다면 오히려 목적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종교를 전하는 것도 종교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그림 · 최주현

부처님, 불교 개종하려는 이에게
"신중히 생각해보거라" 말씀
종교는 삶 위한 방편 인식
내 종교 외 다른 종교 존중해야

물론 이것이 부처님 생각 그대로일 리는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처님 생각의 한 자락을 해석해 보는 것일 따름이지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볍게 종교를 바꾸는 것은 사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그런 뜻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좀 더 확장하면, 종교는 수단이요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이라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도 방편인 셈이지요. 그런데 그 방편을 위해 목적이 다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위해 사람을 해치고, 종교를 위해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종교를 위해 세계를 혼란과 투쟁으로 몰아넣고, 그런 종교라면 없는 것이 낫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생각을 압축해서 여러 종교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여기는 자세,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고 무시하거나 헐뜯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부처님 보듯 존중하는 불자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들이 인연의 부족으로, 혹은 여러 원인으로 가장 뛰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 주려는 극진한 마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그들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나아가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는 것이며 근본과 말단을 혼동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자세를 지니면서,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불교의 관용적인 입장에 동참함으로써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지요. 그것의 귀결로 모든 종교들이 동참하는 '종교평화선언' 같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런 삼쾌선생의 바램,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요? 잠시 보류되고 있는 '종교평화선언', 곧 빛을 보게 되겠지요? 모든 종교가 거기에 동참하여, 우리 사회가 종교 문제에 아픔을 겪지 않는 보다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겠지요?

애고, 삼쾌선생이 늘 관심가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 이야기가 좀 길었지요? 다시 서유기의 무대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지국 임금은 정말 종교에 대한 편향이 너무 심했지요? 최고 통치자가 그렇게 가볍게 종교적 편향성을 보이고, 그러한 줏대 없는 최고통치자에 영합한 올바르지 못한 종교인들이 극단적인 종교박해, 종교대립을 일으키네요. 세상사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게 마련이지만, 오랜 가뭄에 기우제가 영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종교 경쟁을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 신통과 이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든 종교가 사교(邪敎)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교들이 그러하지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종교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주문만 외우면 된다"는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지요. 문제는 그러한 현혹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심으로 믿고 일심으로 외우면 효과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으로 사람을 꼭 옭아매어서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교의 모습입니다. 건전한 종교는 그런 방편을 쓰더라도 사람을 노예로 묶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큰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영험 이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국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종교의 영험함을 경쟁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지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의 전형이라 할까요? 건강한 삶, 훌륭한 세상을 이루는 것에의 경쟁이 아닌 영험 경쟁! 종교가 절대 피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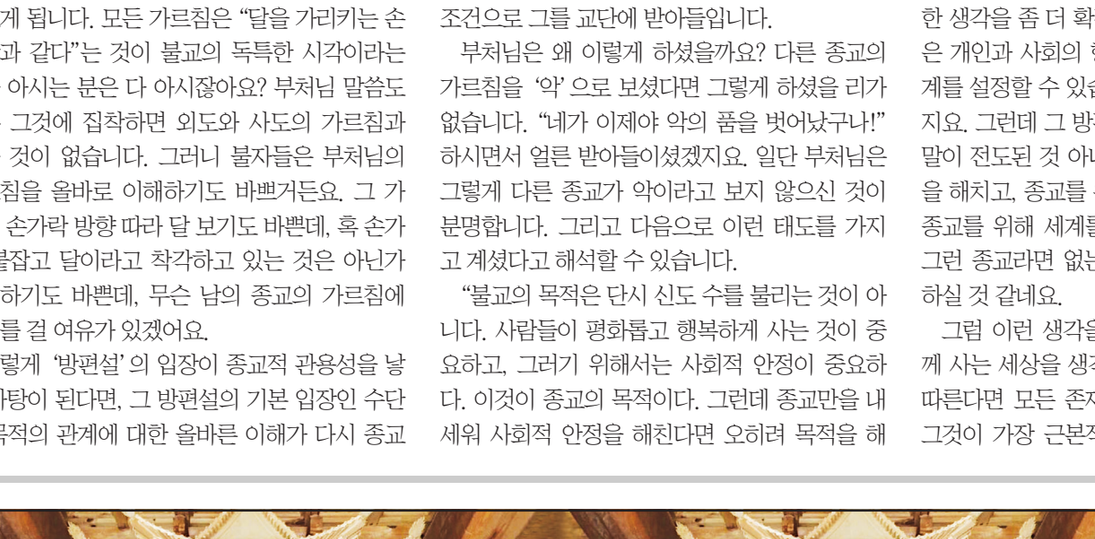
아무튼 영험 경쟁에서 도교가 불교에 패하여, 모든 스님들이 도교 도사들의 노예처럼 부려지게 된 상황…. 여기 손오공이 계시된 영웅으로 등장하여 스님들을 해방시키고 불교를 복권시키네요. 그 과정이 참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쾌선생이 압축한 글로 때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기우제 시합이 이루어지고, 결국 불교가 이기는데 도사들이 승복을 안 해요. 그래서 도술 시합으로 이어지는데, 그 도술시합도 손오공의 기막힌 술법에 의해 불교가 압승! 그런데 그 귀결이 매우 비참해요. 호력대선, 녹력대선, 양력대선이라는, 신선으로 불리던 도사들의 정체가 결국 호랑이, 사슴, 양이 술법으로 변신한 요괴라는 것으로 판명나지요. 물론 시합 도중에 죽으면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름 가마에 들어가기 시합에서, 술법으로 뜨겁지 않게 하던 것을 손오공이 술법을 깨뜨리는 바람에 기름에 삶겨 죽는다는 식으로…. 애고고…. 올바른 종교인이 아닌, 조그만 힘을 얻어 그것으로 혹세무민하던 종교인의 말로를 그린 것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종교인인 척 자신을 뽐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요괴와 같은 본질을 가진 종교인은 없을까요? 얼마 전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었던 그 유명한 종교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요괴와 같은 종교인에게 홀려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종종 터지는 사교로 말미암은 끔찍한 사건들도 많았구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옳은 믿음을 건강한 자세로 믿는 것을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 비극을 일으키는 중심에 줏대 없고 식견 없는 국왕이 있었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네요. 권력과 종교가 유착되면 절대 안 된다는! 지금 여기의 말로 하자면 공직자의 종교 편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불상, 닫집, 수미단, 인등,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연,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 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010-5658-2657